“태고 보우·석옥 청공 만남, 한중교류사 중요 분수령”

태고종 총무원
제8차 한중불교문화교류 국제학술대회

김교흥·임오경 의원 등 공동 주최
상진 스님 “종단 정체성 확립할 것”
韓태고·中석옥 선맥 및 다맥 조명

태고 보우, 임제 법맥 고려에 전승
문헌 전파·의례 확산에도 기여해

“禪, 차의 영혼” 강조한 석옥 청공
법맥과 함께 ‘선다일미’ 정신 전해



태고종 총무원은 11월 12일 국회박물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한중불교문화교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 말기 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태고 보우(1301~1382) 국사와 그에게 법을 전한 중국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 청공(1272~1352)의 전법 교류의 면면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12일 국회박물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한중불교문화교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중불교문화교류의 역사적 계승 및 교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태고 보우 국사와 석옥 청공의 법맥 및 다맥과 한중불교교류사를 조명하는 기조발제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임제 법통이 해동으로…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석옥과 태고의 상견과 환생, 그 미래적 전망’ 기조발제에서 석옥 청공으로부터 태고 보우로 이어진 전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차 석좌교수는 태고 보우 스님이 활동하던 당시 고려 말기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격변 속에 있었으며 불교 역시 구산선문의 분열과 더불어 세속화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되짚고 “이 같은 상황에서 태고 보우 스님은 중국 임제종 정통 법맥을 도입함으로써 고려 선종의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했다”고 봤다.

태고 보우 스님은 46세 때인 1346년 원나라로 떠나 2년여간 행도(行道)했으며,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를 만나 전법 인가를 받았다. 석옥 청공 선사는 원나라 시기 남종선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간화선을 강조하고 청빈한 삶을 실천했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가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 부회장 증도 스님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태고종은 학술대회에 앞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재를 시연했다.

이 같은 임제의 법통이 해동에 전등됨은 △한국 임제종 정통성 확립 △동아시아 불교네트워크 형성 △사상과 제도의 변용이라는 의의를 갖는다는 게 차 석좌교수의 분석이다.

차 석좌교수는 “태고 보우가 석옥 청공에게 인가받음으로써 고려 선종은 중국 임제선의 정맥(正脈)에 연결됐고 이후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법맥 전승을 통한 교류는 고려·원·명으로 이어지는 불교네트워크를 강화했고 이는 학승 교류, 문헌 전파, 의례 문화 확산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공동체 재구성 △수행·교학의 상호 보완 △한중 불교 공동 사회적 실천 △불교문화 자원의 현대적 활용 등을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차 석좌교수는 “중국의 간화선 전통과 한국 불교의 사회참여·제도개혁적 전통은 상호 보완적이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불교는 공동 명상 프로그램, 국제 선원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수행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석옥 청공과 태고 보우의 만남은 중국과 한국의 불교교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이 교류 전통을 계승해 수행과 교학의 상호보완, 사회적 실천의 중시, 불교문화의 현대적 활용을 통해 한중불교가 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옥 청공 ‘다선일미’ 동북아 전파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 부회장 증도 스님(장흥 현성사 방장)은 ‘청공 선사 다선 사상의 초국적 전파’를 주제로 진행한 기조 발제에서 석옥 청공 선사의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조명하고 선사의 다맥이 어떻게 동북아 전반으로 확장됐는지를 살폈다.

증도 스님은 석옥 청공 선사가 남긴 〈산거시(山居詩)〉, 〈석옥청공선사어록〉 등 저작과 다시(茶詩)를 분석하고 “청신하고 자연스러운 필치의 석옥 청공 선사의 다시들은 선승의 차생활과 선 수행 경지의 일치를 생생히 보여 준다”고 평했다.

이 같은 석옥 청공 선사의 법맥과 다맥은 태고 보우 국사를 통해 한반도로 전해졌다는 게 증도 스님의 주장이다. 증도 스님은 “석옥 청공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은 중국 본토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태고 보우 선사에게 전해진 법맥과 각종 전적을 통해 한반도에 뿌리내렸다”고 강조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태고보우, 중국 임제종의 정맥과 종지를 수용하다’를, 구고흥 중국계양대학 인문화외국어학원 교수는 ‘석옥청공의 선법사상연구’를 발표하며 두 선지식의 선사상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최석환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장은 ‘태고보우 국사의 차맥 계승과 하무산 하무차를 통해 본 선차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 석옥 청공과 태고 보우의 차맥 계승을 중심으로’를, 장흥 길상사 문지 스님과 천호암 자성 스님은 ‘원대 하막산 천호암 석옥 청공 선사 선차사상연구’를 통해 석옥 청공의 선차사상과 차맥을 조명했다. 또한,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근현대 한중불교문화의 교류 및 방향’을, 사지빈 서북대학 교수가 ‘가사·법의·어사법의: 승복 제도의 형성과 변천’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중불교 의례로 대회 막을 열다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는 태고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를, 후저우시불교협회 대표단이 중국불교 전통 예불의식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사상을 바탕으로 열린 학술대회는 태고종의 정체성과 사상, 그리고 전통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미래를 탐구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받았다”며 “특히 지난해 중국 절강성 수성사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는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과 법통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한국과 중국의 불교문화교류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고종은 앞으로도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고종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중불교의 인연을 다시 확인하고, 태고 보우 국사께서 이으신 법맥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 속에 되새기기 위한 자리”라며 “학술대회가 단순한 학문 교류를 넘어 불교의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통해 양국이 더 큰 신뢰와 우호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장 계륭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는 중국과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어 주는 중요한 다리였다. 그렇기에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은 더욱 시대적인 빛을 발해야 한다”면서 “오직 교류와 상호 이해, 화합과 공생만이 오래도록 발전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황금유대’가 더욱 굳건해지고 한중불교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내려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회를 공동 주최한 김교흥 의원과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한중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축사를,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